美신자유주의 핵심에 명상 있다



사진출처=허핑턴포스트

거대 경제산업으로 자리잡아 '화제'

강의 · 도서 · 어플 등으로 판매
미국서만 가치 $10억 넘어
중독 · 외로움 · 우울 만연에
해결 도구로 마음챙김 부각
"佛法에 어긋나" 비판세력도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미국서 마음챙김이 열풍을 넘어 경제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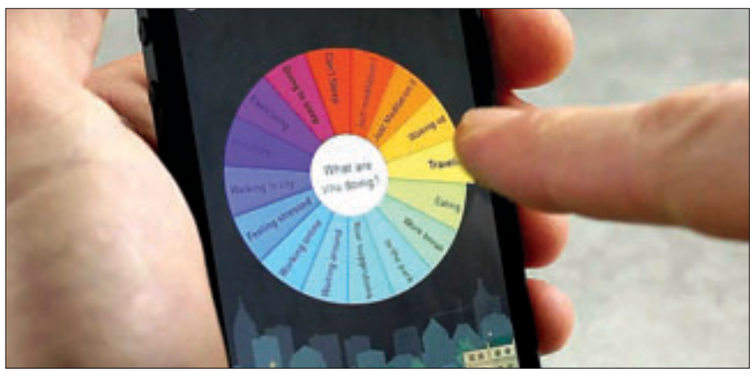
영국 '인디펜던트'는 2월 25일 불교 명상에서 시작된 마음챙김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경제산업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마음챙김은 이미 사업의 아이템으로 자리잡아 강의, 도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만 1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진 시장이 되었다고 전했다.

프랑스 철학자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는 "1960년대 중반 반체제 문화의 하나로 전파된 불교의 명상이 상품화 되어 팔리고 있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며 "주의 깊은 마음과 초월적인 경험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고, 종교색을 빼버린 상품이 바로 마음챙김"이라고 주장했다.

관심경제와 마음챙김

명상과 마음챙김이 사업아이템이 된 것은 '관심경제'가 한몫했다. 펠릭스는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소비자라고 인식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인간관계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TV 화면 속에 집중한 것이 관심경제의 시작이라고 분석하며 "미디어와 광고, SNS의 부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관심과 비전이 상품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특정 분야와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모일수록 반대급부로 중독, 외로움, 우울증과 소외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게 되는 사회 환경과 자신에 대한 불만과 복잡함을 해결하는데 마음챙김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는 특히 최근 신자유주의의 많은 특징과 관심경제의 요구에 맞춰 대중적이고 세속화된 마음챙김이 더욱 유행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책임과 자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표어가 마음챙김에 적용됐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압력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등의 완화책으로 마음챙김을 통해 스스로 제어하고 완화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인디펜던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마음챙김을 주제로 한 강연과 트레이닝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마음챙김 명상을 돕는 기능으로 인기를 끄는 모바일 앱 '부디파이(Buddhify)'.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다시 불교로 돌아가다

그러나 마음챙김이 단순히 경제사상에 휩쓸려 상품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슬라보 지젝(Slavoj Zizek)은 "세속적 치료방법으로 마음챙김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마음챙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본래 마음챙김은 불교철학에서 말하는 윤리와 철학적 통찰을 수반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론 고통의 근원에 대한 설명하기에 이는 소비주의적인 사회문제에 완벽한 보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철학자 마리아 푸익(Maria Puig)교수는 "불교철학에서는 올바른 마음챙김과 잘못된 마음챙김을 구분한다.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자유로운 통찰력을 위해 마음챙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개인이 독점하거나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에 대한 윤리와 상호간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실제 현실에서 적용된다"고 말했다.

푸익 교수는 "지식과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육체적인 힘의 관계성이 없다면 발현되지 않는다. 반대로 육체적인 힘만 있고 지식과 사고만 있다면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며 "윤리적 철학적 뿌리가 사라진 기술적인 마음챙김은 부처님이 뿌리 뽑고자한 고통의 근원을 회복시킬 뿐"이라고 분석하며 "자본주의 속에서 올바른 마음챙김은 개인적, 사회적 고통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통찰이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저항과 참여의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이 중국인이라고?"

中학자 불교 기원 중국 주장…
현실은 중국 학계에서도 반박

중국서 석가모니와 불교가 중국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는 가운데, 한 중국인 대학 교수가 이 내용을 뉴스포털에 기고해 몰매를 맞고 있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2월 20일 화제의 중국인 대학교수와 중국 내 현황에 대해 보도했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11월에 중국의 뉴스포털 '소후닷컴'에 기고된 것으로 기고자는 베이징 대학의 중의학 교수 리리안송(李良松)이다. 리교수는 10가지 항목으로 석가모니가 중국인이라고 주장했다. 그중에 하나는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가 사실은 네팔이 아니라 고대 중국에서 특별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교문헌에서 보이는 고대국가들과 그 풍습 등이 고대 중원에서 기원 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사실 중국에서 부처님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리교수가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중국에서 발표된 〈불교의 중국기원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논문을 시발점으로, 최근 중국에서는 석가모니의 중국기원에 대한 주장이 종종 제기돼 왔다. 논문의 저자인 장류바이 청두이공대학 교수는 스촨성의 산싱두이(三星堆)유적에서 발굴된 BC. 1000년경의 조각상들이 불상이라고 주장하며 "불상들은 옥과 상아로 만들어졌고, 수정으로 만든 불두(佛頭)도 발굴됐다. 불교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전파되었다가 다시 중국 내륙으로 재전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포털과 SNS 등으로 리교수의 기사와 장교수의 논문 등이 화제가 되자 중국학계 내에서도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산싱두이 고고학 박물관은 장교수의 출입을 거부하고 장교수가 주장하는 조각상들은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박물관 측은 "장교수는 허구로만 가득한 논문으로 불교가 산싱두이에서 기원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본 박물관은 장교수와 일체 관계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종교학전문가 셴구이핑(沈桂平) 박사는 "석가모니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연구의 의미가 뭔지 알 수 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해당 논문과 기사들은 그 연구방법과 증명이 무효하며, 단지 지나친 애국심을 보이려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고 되려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인도는 불교를 통해 외교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인도 대통령 프라티바 파틸(Pratibha Patil)은 뤄양(洛陽)의 백마사 국제사원군에 인도식 불교사원을 지어 양국의 오랜 정신적 연결을 기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서 거대 탱화에 염원을…



괘불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거대 탱화가 언덕에 걸리는 모습. 사진출처=신화통신

3층 높이의 탱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티베트에선 매년 2월, 큰 탱화를 걸고 기도하는 괘불축제가 열린다.

중국 '신화통신(Xinhaunet)'은 2월 28일, 같은 날 열린 티베트 괘불축제(Sunning of the Buddha) 현황을 보도했다. 이 축제는 게룩파(티베트 불교 종파)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원 중 하나인 라브랑 사원서 열렸다.

축제는 100여 마리의 라마가 탱화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언덕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마가 탱화를 운반하는 동안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 관광객들이 그 뒤를 잇는다. 이들은 탱화에 이마를 갖다 대며 행운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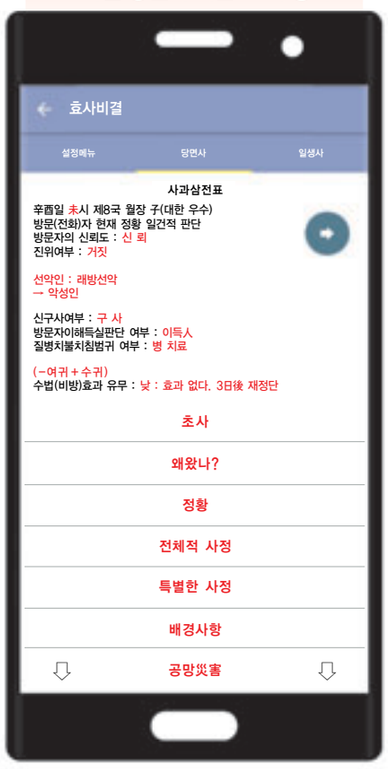
한 시간 뒤, 탱화는 언덕에 펼쳐진다. 동시에 불자들과 스님들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한다. 불자들은 탱화에 카닥(Hada)을 바치기도 하는데, 카닥은 티베트에서 공양물로 쓰는 비단 스카프다.

박진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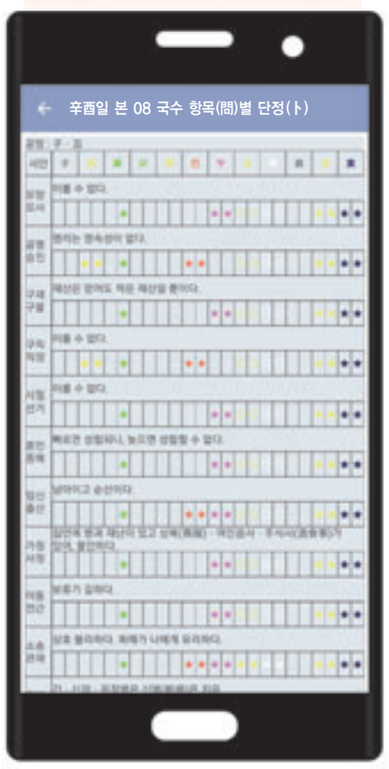
휴대폰에 육임 CD프로그램
'효사비결 최신완결판'을 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이든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당면사 27개 항목, 일생사 17개 항목을 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 효과성 · 신속도 · 간편성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① 육임 당면사 즉단 27개 항목



② 육임 성부판단 24개항목과 12띠별 확정



원터치 기능

- 상대의 공 · 사적 비밀 사항 적시
- 귀신 · 부정 · 산소탈 침범 여부
- 질병 치 · 불치 · 오래끔 판단
- 천도 · 시식 · 기도 효과 유무
- 대적자 처신 방침
- 묻는 사항 24개 항목 띠별 성부 표시 등등

- 정 가 : ~~30만원~~ → 20만원 (3월 10일까지 할인)
- 계 좌 : 기업은행 024-086103-04-019 대한불교 천기종
- 설 치 : 입금 확인 후 10분 이내 본인 핸드폰에 설치됨
- 참 고 : 본인 실명으로 개통된 핸드폰
- 전 화 : 주 · 야 010-4500-5465 일과시간 02-738-8685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빌딩 22층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